

사회계층의 심리: 문화적 사고성향(분석적-종합적 사고)과 사회비교성향*

김 범 준†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본 연구는 사회계층에 따라 문화적 성향의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성향과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계층, 분석적-종합적 사고, 그리고 사회비교성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에 따라 분석적-종합적 사고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중/하위 계층 사람들에 비해 종합적 사고성향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분석적-종합적 사고의 하위 요인들과 사회계층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순에 대한 태도'와 '변화에 대한 지각' 요인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인과성'과 '주의 소재' 요인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비교성향의 경우, 하위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중/상위 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사회비교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사회비교성향의 하위 요인인 '능력'과 '견해(opinion)'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사회계층, 문화, 분석적-종합적 사고성향, 사회비교성향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김범준,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249-9193, E-mail: bjkim@kyonggi.ac.kr

사회계층의 개념은 흔히 ‘social stratum’, ‘social class’, ‘social status’, ‘socioeconomic status’ 등 매우 다양한 용어들과 관련이 있다(박지은, 권순만, 2015; 박혜경, 2015; 이하영, 2016; Fiske, 2010). 이 개념들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social stratum)’라거나 ‘서열의 개념을 포함하는 지배 복종 관계를 강조(social class)’하기도 한다. 또한 ‘내적 요인에 의한 성취지위를 강조(socioeconomic status)’하거나 ‘지위의 상대적 위치를 강조(social status)’하고 있다. 비록 각 개념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social class)을 유사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계층의 지표는 교육, 임금, 소득, 참여하는 활동이나 단체 등과 같은 요소들로 산출된다(Oakes & Rossi, 2003).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같은 요인으로 산출된 지표가 설명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Kraus, Piff, & Keltner, 2009). 이들은 물질 중심의 객관적 요소들에 의한 지표보다 개개인이 지각하는 사회계층의 지위와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지표가 더 적절한 사회계층의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Cohen, Alper, Doyle, Adler, Treanor, & Turner, 2008). 실제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객관적 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관적으로 지각된 심리적 지표가 사회계층을 더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Kraus, Piff, Mendoza-Denton, Rheinschmidt, & Keltner, 2012).

최근 심리학에서는 사회계층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Côté, Markus, & Townsend, 2007; Kraus, Côté, & Keltner, 2010; Kraus & Keltner, 2009; Piff, Kraus, Côté, Cheng, &

Keltner, 2010). 이 같은 연구들은 사회적 환경에 해당하는 문화가 인간의 인지, 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회적 환경의 하나인 사회계층 역시 우리의 심리적 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있다(Fiske & Markus, 2012; Grossmann & Varnum, 2011; Kraus, Piff, & Keltner, 2011; Stephens, Markus, & Fryberg, 2012).

사회계층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다고 할 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속성 중 하나는 사회비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비교는 불확실한 사회 환경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이기 때문이다(한덕웅, 장은영, 2007; Festinger, 1954; Guimond, Chatard, Martinot, Crisp, & Redersdorff, 2006). 또한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 환경에 속하는 문화 역시 사회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White & Lehman, 2005), 사회계층의 심리적 속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사회비교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사회비교는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문화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서양인들에 비해 사회 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ite & Lehman, 2005; White, Lehman, & Cohen,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속성에 해당하는 문화적 사고성향(인지)뿐만 아니라 사회비교성향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사회계층, 문화, 그리고 인지

사회계층(social class)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학자들의 중요 연구 주제 중 하나였다(Durkheim, 1893/1933).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Karus et al., 2012). 하나의 흐름은 Marx와 Engels(1848/1973)의 자본주의와 계급갈등의 분석에 근거한 노동의 관점(labor perspective)과 관련된 것이다. 이 관점

은 사회계층을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사람들(지배계층인 부르주아)과 그 수단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하위 계층인 노동자) 간의 관계로 보았다. 또 다른 동향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유래된 사회계층에 대한 건강심리학적 관점(health psychology perspective on social class)이다. 이 관점은 사회계층과 질병, 정서, 행복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Diener & Suh, 1997; Gallo & Matthews, 2003; Kawachi, Kennedy, Lochner, & Prothrow-Stith, 1977; Kraus et al., 2012; Wilkinson, 1999).

최근에 대두된 흐름은 사회계층을 문화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사회계층을 문화와 같은 시각에서 보고 있다. 즉 문화처럼 사회계층 역시 각 계층에 적합한 독특한 가치와 행동 양식을 창출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2003; Stephens, Fryberg, & Markus, 2011). 예를 들어 사회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매너나 예의범절을 가지고 있고(Elias, 1978), 각기 다른 관습과 습관을 존중한다(Bourdieu, 1985). 그리고 각기 다른 음악(Snibbe & Markus, 2005)과 각기 다른 양육방식을 선호한다(Kusserow, 2004; Lareau, 2003). 즉 사회계층은 문화와 같이 하나의 사회적 환경으로 사회계층은 계층 구성원에게 다양한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Grossman & Warnum, 2011).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 즉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공통적인 행동양식이나 사고성향을 보여주고 있다(Nisbett, 2003). 같은 맥락에서 사회계층 역시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작용한다(Stephens et. al., 2012). 바꾸어 말하면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인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양식의 행동패턴이나 사회인지 양식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계층에 따라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반응 양식에 차이가 있다.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계층이 낮은 사

람들은 사회적 맥락과 관계있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Kraus et. al., 2010). 그리고 상위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응을 더 잘 억제한다(Na & Chan, 2016). 또한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정보에 더 민감하며, 이 같은 이유로 친사회적 행동에도 더 쉽게 개입하게 된다(Piff et al., 2010).

문화심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자아에 대한 시각(views of the self)과 사고성향(thinking style)이라는 2가지 개념에 연구초점을 맞추어 왔다(Heine, 2008; Kitayama & Cohen, 2007). Markus와 Kitayama(1991)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개인과 문화에 관한 연구는 개인을 독립적 차원에서 정의하는가(독립적 자아) 아니면 상호의존적 차원에서 정의하는가(상호의존적 자아)에 따라 각 문화를 구분하였다. 이 같은 자아에 대한 상이한 시각은 상/하위 사회계층 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Kraus et al., 2012). 즉 자아에 대한 초점이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미의 경우,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영향을 덜 받고, 자신의 독특성을 표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독립적 자아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Stephens, Markus, & Townsend, 2007).

한편, 문화와 관련된 사고성향의 경우, 사고유형을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와 종합적 사고(holistic thinking)로 구분할 수 있다(Choi, Koo, & Choi, 2007;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분석적 사고란 지각의 장에서 초점이 되는 대상을 더 잘 구분하고 사건의 변화를 선형적 관계로 지각한다.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행위 주체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종합적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주의(attention)를 장(field)을 포함한 전체에 두며, 객체와 사건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 사건의 변화를 순환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또한 사건의 원인을 맥락의 측면에서 찾는 경향이 더 크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Grossman & Varnum,

2011; Kraus et al., 2009; Kraus et al., 2011), 사회 계층이 계층원의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Kraus 등(2011)은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에게 발생한 사건들이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외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이나 부가 교육 기회와 같은 맥락적 요인 때문이라고 귀인하였다. 이에 반해, 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재능과 같은 기질적 요인들 때문이라고 귀인하였다.

Grossman과 Varnum(2011)은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 같은 행동을 귀인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행위가 행위자의 기질적 요인보다는 상황적 요인 때문이라고 귀인하였다. 하지만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귀인하였다(실험 1). 또한 Grossman과 Varnum(2011)은 실험 2에서 Masuda와 Nisbett(2006)이 사용한 영상 자극과 Ji, Nisbett, 및 Su(2001)가 사용한 시간변화 사례를 통해 시각적 주의(attention)와 변화에 대한 예측에 사회계층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맥락적 주의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순환적 변화와도 역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계층은 문화와 같이 계층 구성원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중심의 연구결과들로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반복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계층이 갖는 심리적 영향이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Choi, Gobel, & Uchida,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사회계층이 사고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Grossman & Varnum, 2011; Kraus et al., 2010; Kraus et al., 2011)은 사례나 영상 자극을 통해 사회계층이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전 연구들은 분석적-종합적 사고성향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즉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의 하위요소에 해당하는 주의, 인과성, 변화에 대한 지각,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해결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그런데 Choi와 그의 동료들(2007)은 이 같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사고성향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oi 등(2007)이 개발한 사고성향 척도를 이용하여 사회계층과 사고성향 간의 전반적 관계 뿐 아니라 사회계층과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 간의 관계도 살펴보려고 한다.

사회계층과 사회비교성향

사람들은 매 순간 판단을 한다. 판단의 순간 사람들은 그 판단이 어느 정도 올바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될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보고나서 8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면, 그것은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이 같은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는 2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절대적 기준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어 어느 정도의 의견이나 능력을 보이면 잘했다거나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이 같은 절대적 기준을 갖기는 어렵다.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 같은 상대적 기준과의 비교과정을 Festinger(1954)는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사회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한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과정은 인간의 추동(drive)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과정이다(Festinger, 1954). 이는 인간이 많은 것을 판단함에 있어 자동적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비교의 동기가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비교의 동기는 개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Steil & Hay, 1997). Gibbons와 Buunk(1999)는 이 같은 맥락에서 사회비교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이 척도에서 2가지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다. 그 중 하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견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비교 경향성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견이 올바른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비교 경향성을 말한다.

사회비교성향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Wills, 1991), 스트레스, 새로움, 혹은 변화(Aspinwall, 1997; Buunk, 1994; Molleman, Pruyn, & van Knippenberg, 1986; Schachter, 1959)는 사회비교를 증가시킨다. 또한 문화에 따라서도 사회비교성향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hite & Lehman, 2005). 일반적으로 서양문화에 비해 동양문화에서 사회비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양문화는 자아를 상호의존적 차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자아와 관련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기와 관련된 타인 혹은 외적 정보와의 비교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양문화는 자아를 독립적 차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자아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결국 자아와 관련된 판단을 할 때 타인이나 외부 정보와의 비교를 덜 하고 자신의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된다(Kemmelmeier & Oyserman, 2001; White & Lehman, 2005).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계층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Dubois, Rucker, & Galinsky, 2015; Piff et al., 2010). 즉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정보에 더 민감하여 타인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타

인에 대한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Piff et al., 2010). 또한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에 관한 비윤리적 행동에 개입하기 쉽지만,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관한 비윤리적 행동에 개입하기 더 쉽다(Dubois et al., 2015). 같은 맥락에서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성을 나타내는데 더 민감하다(Stephens et al., 2007). 그 결과로 소비행동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Na, McDonough, Chan, & Park, 2016).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사회비교성향이 사회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비교성향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회비교성향은 성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아라, 이장한, 2013; Guimond et al., 2006). 사회비교성향의 성차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신체적 매력과 관련된 분야이다. 예를 들어 조아라와 이장한(2013)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신체비교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은 타인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사회비교의 성차가 발견되었다. 또한 Guimond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관계적 차원에서 자신을 더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적 차원에서 자신을 기술하는 것은 집단 내 상황에서는 성차가 적었지만 집단 간 상황에서는 성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사회비교성향에 있어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계층에 따라 사고성향과 사회비교 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

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사회 계층과 문화적 사고성향 그리고 사회비교성향을 조사하여 사회계층에 따라 문화적 사고성향과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조사 지역의 선정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할 때 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따랐다. 그리고 5대 권역의 주요 대학교에서 대학생 각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였다. 조사는 선정된 학교 내에서 임의의 학생에게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주로 각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 523명, 여학생 477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1.36세(SD= 2.39세)이었다.¹⁾

사회계층

사회계층은 Horberg, Oveis, Cohen, & Keltner (2010)가 사용했던 방식²⁾을 변용하여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회계층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1)상상 2)상중 3)상하 4)중상 5)중중 6)중하 7)하상 8)하중 9)하하의 9단계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분석에서는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

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계층별 분석을 보면, 상의 사회계층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41명(남: 99명, 여: 42명), 중의 사회계층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92명(남: 380명, 여: 412명), 하의 사회계층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7명(남: 44명, 여: 23명)이었다.

사고성향 (분석적-종합적 사고)

사고성향의 지표로 Choi 등(2007)이 개발한 분석적-종합적 사고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화적 사고성향인 종합적 사고(holistic thinking)와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인과 관계로 얽혀 있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와 같이 동서양 문화에서 발달한 2가지 사고성향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 척도는 ‘인과성(causality)’ 요인으로 행위자의 내적 속성이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나 행위자와 그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행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하위 척도는 ‘모순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contradiction)’ 요인으로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논쟁이 있다면, 한쪽의 입장에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두 전제를 바탕으로 중간점을 택하거나 모순을 그냥 두고 중간적 선택을 하는가하는 해결방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하위 척도는 ‘변화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change)’ 요인으로 세상의 변화가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소재(locus of attention)’ 요인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때 그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대상에 더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그 배경

1)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대 SSK 사업(NRF-2010-330-B00305)에서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한 것임.

2) Herberg 등(2009)은 하류층, 중하층, 중류층, 중상층, 상류층의 5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 중, 하층을 각 단계마다 3단계로 구분하여 총 9단계로 구분하였다.

에도 초점을 두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각 질문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 ‘매우 동의한다(7)’의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척도값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종합적 사고 경향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적-종합적 사고성향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의 값은 .85이었다. 그리고 하위 척도인 ‘인과성(causality)’의 신뢰도 Cronbach α 의 값은 .84, ‘모순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contradiction)’의 신뢰도 Cronbach α 의 값은 .65, ‘변화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change)’의 신뢰도 Cronbach α 의 값은 .53, 마지막으로 ‘주의 소재(locus of attention)’의 신뢰도 Cronbach α 의 값은 .76이었다.

사회비교성향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사회비교성향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요인은 능력과 관련되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며(예시 문항: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과 비교한다’, ‘나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항상 알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견과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성향(예시 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의견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자주 비교한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서 5점 척도 상에 응답하였다. 분석에서는 척도값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의 값은 .82이었으며, 능력 요인의 신뢰도 Cronbach α 의 값은 .76이었으며 의견 요인의 신뢰

도 Cronbach α 의 값은 .59이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계층에 따라 문화적 사고성향과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사후대비는 LSD방식을 이용하였다.

결 과

사회계층과 문화적 사고성향(분석적-종합적 사고)

먼저 사회계층에 따라 전반적인 종합적 사고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계층(3) \times 성별(2)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70)=5.71, p<.01$. 각 집단의 평균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이 4.48(0.63), 중인 집단이 4.64(0.67), 그리고 하인 집단이 4.76(0.60)이었다.³⁾ 각 집단 평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LSD방식을 이용한 사후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집단과 중/하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중집단과 하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수준). 즉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3) 자료처리시 9단계로 응답한 사회계층을 상/중/하의 3단계로 변환하였는데 원자료처럼 9단계를 이용하여 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분석적-종합적 사고: $-.100(p<.01)$, 인과성: $-.061(p=.055)$, 모순에 대한 태도: $-.086(p<.01)$, 변화에 대한 지각: $-.119(p<.001)$, 주의 소재: $-.042(p=.190)$, 사회비교성향: $-.082(p<.05)$, 능력: $-.080(p<.05)$, 견해: $-.072(p<.05)$).

표 1. 사회계층에 따른 분석적-종합적 사고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	중	하	F
종합적 사고	4.48 ^a (0.63)	4.64 ^b (0.67)	4.76 ^b (0.60)	5.71 ^{**}

주) ** $p < .01$

윗첨자가 다른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로 종합적 사고의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분석적 사고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하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논리가 변하는 종합적 사고 경향이 강하다면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상황이 변해도 처음에 세운 논리대로 판단하는 분석적 사고의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의 주효과($F(1, 970)=0.41, p=.524$)와 성별과 사회계층의 상호작용 효과는($F(2, 970)=1.11, p=.330$)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계층이 종합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계층이 종합적 사고성향의 4가지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⁴⁾ 먼저 사회계층이 ‘모순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contradic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계층과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92)=6.97, p < .001$.

각 집단의 평균은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이 4.41(0.89), 중인 집단이

4) 4가지 하위 요인의 경우 서로 독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 요소로 보고 변량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 측면에서 1종류의 가능성이 있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독립적인 변량분석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다음과 같다: 사회계층의 주효과(모순에 대한 태도: $F(2, 970)=6.00, p=.003$; 변화에 대한 지각: $F(2, 970)=6.46, p=.002$), 성별의 주효과(변화에 대한 지각: $F(1, 970)=11.01, p=.001$).

표 2. 사회계층에 따른 모순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	중	하	F
모순에 대한 태도	4.41 ^a (0.89)	4.64 ^b (0.85)	4.75 ^b (0.90)	6.97 ^{***}

주) *** $p < .001$

윗첨자가 다른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4.64(0.85), 그리고 하인 집단이 4.75(0.90)이었다. 각 집단 평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LSD방식을 이용한 사후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집단과 중/하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중집단과 하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수준). 즉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에 비해 다른 두 집단이 모순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상류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중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사건이나 생각 혹은 사실들을 더 양립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성별의 주효과($F(1, 992)=0.14, p=.707$)와 성별과 사회계층의 상호작용 효과는($F(2, 992)=1.58, p=.206$)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계층에 따라 ‘변화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change)’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의 평균은 4.18(0.83), 중인 집단의 평균은 4.45 (0.81), 그리고 하인 집단의 평균은 4.58(0.79)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사회

표 3. 사회계층에 따른 변화에 대한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	중	하	F
변화에 대한 지각	4.18 ^a (0.83)	4.45 ^b (0.81)	4.58 ^b (0.79)	11.32 ^{***}

주) *** $p < .001$

윗첨자가 다른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981)=6.70, p<.001$.

각 평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LSD 방식을 통한 사후대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집단과 중/하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중집단과 하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수준). 즉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순환적 변화 지각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하류 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적 변화가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세상의 변화가 덜 순환적(cyclic)으로 변한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변화에 대한 지각의 경우 성별의 주 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981)=11.32, p<.001$. 각 집단의 평균은 남학생이 4.31(0.82)로 4.92(0.73)인 여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시간적 변화가 더 순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더 사물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아마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많은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Epstein, Pacini, 및 Denes-Raj(1996)가 주장한 것과 같이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성적 확대와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더 일찍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세상 일들이 자신의 의지보다 환경적 영향에 더 좌우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결국 미래에 대한 변화도 순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宿命론적 생각을 더 갖게 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성별과 사회계층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981)=1.11, p=.330$. 그리고 나머지 두 요인 즉 ‘인과성(causality)’과 ‘주의 소재(locus of attention)’에서는 사회계층과 성별의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⁵⁾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계층에 따라

문화적 사고성향에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에 비해 중/하인 집단이 더 종합적 사고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하위 요인별로 보면, ‘모순에 대한 태도’의 경우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에 비해 중/하인 집단이 더 모순을 잘 받아들이며, ‘변화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에 비해 중/하인집단이 더 순환적인 시간적 조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과 사회비교성향

먼저 사회계층에 따라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계층(3) × 성별(2)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의 평균이 3.27(0.53), 중인 집단의 평균이 3.36(0.58), 그리고 하인 집단의 평균이 3.35(0.58)이었으며, 사회계층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90)=6.75, p<.001$.⁶⁾

표 4.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비교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	중	하	F
사회비교	3.27 ^a	3.36 ^a	3.55 ^b	6.75***
성향	(0.53)	(0.58)	(0.58)	

주) *** $p<.001$

윗첨자가 다른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5) 인과성: 사회계층, $F(2, 989)=1.89, p=.152$; 성별, $F(1, 989)=.00, p=.985$; 상호작용, $F(2, 989)=0.50, p=.605$ / 주의소재: 사회계층, $F(2, 988)=1.26, p=.285$; 성별, $F(1, 989)=0.21, p=.651$; 상호작용, $F(2, 989)=0.49, p=.608$.

6) 문화적 사고유형과 같이 2가지 하위 요인의 경우 서로 독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 요소로 보고 변량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 측면에서 1종류의 가능성이 있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독립적인 변량분석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다음과 같다: 사회계층의 주효과(능력: $F(2, 990)=6.12, p=.002$; 견해: $F(2, 990)= 5.50, p=.004$), 사회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견해: $F(1, 970)=3.10, p=.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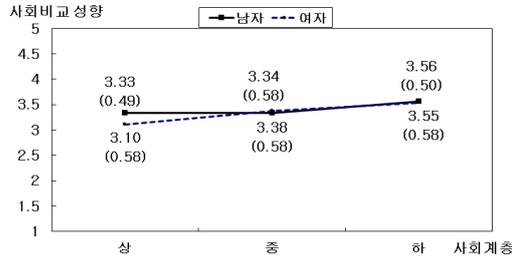


그림 1. 사회계층과 성별에 따른 사회비교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각 집단 평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LSD방식을 이용한 사후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중 집단과 하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상집단과 중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수준). 즉 사회계층이 하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이 상/중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비해 하인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수행이나 위치 등을 판단하는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990) = 2.75, p = .065$.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사회비교성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138) = 2.37, p < .05$). 이 같은 결과는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사회비교성향이 높다는 기존 연구(Gibbons & Buunk, 1999)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별의 주 효과

7) 각 성별집단 별로 사회계층이 사회비교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남자: $F(2, 518) = 3.20, p < .05$; 여자: $F(2, 472) = 5.09, p < .01$). 또한, 성별의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1.53, t = 60.42, p < .001; F(992, 3) = 1230.36, p < .001$).

표 5. 사회계층에 따른 능력에 대한 사회비교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	중	하	F
능력	3.25 ^a	3.35 ^a	3.55 ^b	6.12**
비교성향	(0.62)	(0.66)	(0.66)	

주) ** $p < .01$

윗첨자가 다른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990) = 1.25, p = .263$.

다음으로 사회비교성향의 두 하위 요인별로 사회계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인 ‘능력’ 요인에 미치는 사회계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3) × 성별(2)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91) = 6.12, p < .01$.

각 집단의 평균은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이 3.25(0.62), 중인 집단이 3.35(0.66), 그리고 하인 집단이 3.55(0.66)이었다. 각 집단 평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LSD방식을 이용한 사후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이 상/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과 중인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수준). 즉 사회계층이 하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중류 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하류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이나 사회기술, 일 처리 방식 등에 대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별의 주 효과($F(1, 991) = 0.66, p = .416$)와 성별과 사회계층의 상호작용 효과는($F(2, 991) = 2.11, p = .122$)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위 영역인 ‘견해(opinion)’에 미치는 사회계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표 6. 사회계층에 따른 견해에 대한 사회비교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	중	하	F
견해	3.29 ^a	3.37 ^a	3.56 ^b	5.50**
비교성향	(0.52)	(0.59)	(0.60)	

주) ** $p < .01$

윗첨자가 다른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위해 사회계층(3) × 성별(2)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의 평균은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이 3.29(0.52), 중인 집단이 3.37(0.59), 그리고 하인 집단이 3.56(0.60)이었으며, 사회계층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92) = 5.50, p < .01$.

각 집단 평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LSD방식을 이용한 사후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중 집단과 하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상집단과 중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수준). 즉 사회계층이 하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견해에 대한 사회비교를 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층이 상/중인 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하인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90) = 3.10, p < .05$.⁸⁾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사회계층이 상인 집단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사회비교성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138) = 2.31, p <$

8) 각 성별집단 별로 사회계층이 견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남자: $F(2, 519) = 3.80, p < .05$; 여자: $F(2, 473) = 4.21, p < .05$). 또한, 성별의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1.69, t = 140.42, p < .001; F(992, 3) = 6642.3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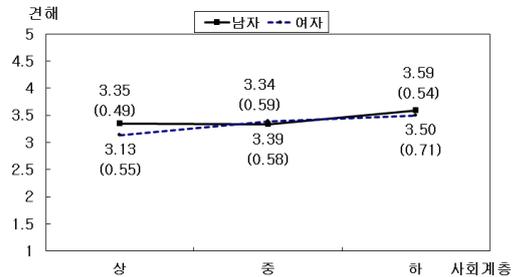


그림 2. 사회계층과 성별에 따른 견해에 대한 사회비교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

.05). 하지만 사회계층이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성별의 주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992) = 1.82, p = .17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문화적 사고성향과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 사회계층 수준과 인지적 사고를 측정하는 분석적-종합적 사고성향 그리고 사회비교성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에 따라 종합적 사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이 중간이거나 낮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계층이 높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종합적 사고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류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황에 따라 논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합적 사고 경향보다는 상황이 변해도 같은 논리에 따라 판단을 하는 분석적 사고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계층에 따른 분석적-종합적 사고 경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분석적-종합

적 사고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사회계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순에 대한 태도’와 ‘변화에 대한 지각’ 요인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그 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상반된 사실에 대해 모순되는 것을 해결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도록 추구하려는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의 양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세상 일은 반복된다는 순환적 변화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Grossman & Varnum, 2011; Kraus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또한 사회계층이 사회비교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비교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더 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이 사회비교성향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능력이나 견해 요인 모두에서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타인의 정보와 비교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판단하려고 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판단 역시 같은 비교과정을 더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이었다(Kusserow, 2004; Lareau, 2002; Na & Chan, 2016).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효과이외에도 흥미로운 성차효과들이 나타났다. 먼저 분석적-종합적 사고의 경우 그 하위 요인인 변화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성차를 보였다. 즉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변화에 대한 지각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것은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앞으로의 변화가 직선적이기보다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더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비교성향의 경우에는 사회계층과 성차의 상

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간에 사회비교성향에 차이가 없으나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사회비교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성향 차이는 능력 요인의 경우에는 없었으나, 견해 요인의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하나의 추측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 사회계층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타인보다는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 참여자인 여대생의 경우 각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로 남성중심사회에서 공부를 통해 남성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보다 우위의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자신감과 사회계층이 상호작용하여 상위 계층의 여학생이 동계층의 남학생들보다 더 자신의 견해에 집중하게 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차와 사회계층 간의 상호작용 결과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집단 성원중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사회계층의 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추론과 해석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체계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계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20여 년간 미국의 사회심리학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구주제이다(Fiske & Markus, 2012). 그렇지만 한국에서 사회계층의 문제는 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 같은 타 학문분야에서 주로 정치적 측면이나 사회계층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또한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단순하게 하나의 변수로만 다루어졌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사회계층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사회계층의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적 차이가 그 심리적 특성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국내 연구라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완전한 확률 표본은 아니지만 전국 5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실상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한 연구라고 하겠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회계층을 문화와 같이 사회적 상황으로 보고 각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Fiske & Markus, 2012).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에 속해 있는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사회 행동의 원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Cheung & Lucas, 2016; Dubois et al., 2015; Na & Chan, 2016; Piff et al., 2010). 이처럼 문화나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예: 범죄자) 문화를 하나의 사회적 환경으로 보고 각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후속연구로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유형을 문화적 요소와 관련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데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집합주의 역시 문화라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즉 두 개념 모두 문화적 토대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Kühnen, Hannover, & Schubert, 2001; Kühnen & Oyserman, 2002; Oyserman & Lee, 2008). 그런데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는 두 개념은 서로 구분된다고 확인되었다(Choi et al., 2007). Choi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집합주의가 가치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반해, 종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는 사고유형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간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

회계층이 문화적 사고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와 같은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자료를 통해 한국인들의 사회계층 심리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최근 연구(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2012)에 따르면,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개인주의-집합주의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근거한다면, 사회계층이 사고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의 효과를 고려한 사회계층의 심리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계층이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에 있어 지역의 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부의 지역 편중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울에서는 좋은 집을 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좋은 집을 구입할 수도 있다. 즉 돈의 가치가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어 돈의 크기에 대한 지각에 있어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를 고려한 측정 방법과 연구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단순히 주관적 지각의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물론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측정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ske & Markus, 2012; Horberg et al., 2009). 하지만 사회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는 복합적 개념의 측정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의 심리를 알아보고자 사회계층에 따라 문화적 사고성향과 사회비

교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변수간의 관계에서 보면 현실에서 어떤 변수가 원인이 되는 변수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계층이 사고성향이나 사회비교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고성향이나 사회비교성향이 사회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계층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조작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Na & Chan, 2016). 그러므로 변수간의 인과성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 후속연구에는 사회계층을 조작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석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과에 대한 보다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 중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이 분석적-종합적 사고와 사회비교성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단편적 내용만을 살펴보았다. 사회계층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매우 단편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해석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심리적 변수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계층의 심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실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지은, 권순만 (2015).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와 건강 간의 연관성. *보건과 사회과학*, 38, 95-121.
- 박혜경 (2015). 도덕적 판단과 처벌 판단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1), 53-69.
- 이하영 (2016). 사회계층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457-483.
- 조아라, 이장한 (2013). 성차에 따른 신체비교와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05-120.
- 한덕웅, 장은영 편저 (2007). *한국인이 사회비교 심리*. 서울: 박영사.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2012). 한국인의 마음지도 I -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435-464.
- Adler, M.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 Aspinwall, L. G. (1997). Future-oriented aspects of social comparisons. In B. P. Buunk & F. X. Gibbons (Eds.), *Health, coping, and well-being: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pp. 125-166). Mahwah, NJ: Erlbaum.
- Bourdieu, P. (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Theory and Society*, 14, 723-744.
- Buunk, B. P. (1994). Social comparison processes under stress: Towards an integration of classic and recent perspectives.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5, pp. 211-241). Chichester, England: Wiley.
- Choi, E., Gobel, M., & Uchida, Y. (2016). Social hierarchies in cultural contexts: Japan and U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Nagoya, Japan.
- Choi, I., Koo, M., &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91-705.
- Cohen, S., Alper, C. M., Doyle, W. J., Adler, N., Treanor, J. J., & Turner, R. B. (2008).

-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sceptibility to the common cold. *Health Psychology, 27*, 268-274.
- Côté, S., Markus, H. R., & Townsend, S. S. M. (2007). Choice as an act of meaning: The case of social cla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14-830.
- Diener, E.,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189-216.
- Dubois, D., Rucker, D. D., & Galinsky, A. D. (2015). Social class, power, and selfishness: When and why upper and lower class individuals behavior unethical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436-449.
- Durkheim, E. (193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NY: The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93).
- Elias, N. (1978). *The civilizing process: The history of manners*. New York, NY: Urizen Books.
- Epstein, S., Pacini, R., Denes-Raj, V., & Heier, H.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uitive-experiential and analytical-rational thinking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90-40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ske, S. T. (2010). Interpersonal stratification: Status, power, and subordinat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Vol. 2, pp. 941-982)*.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Fiske, S. T., & Markus, S. R. (2012). *Facing social class: How societal rank influences inter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allo, L. C., & Matthews, K. A. (2003).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hysical health: Do negative emotions play a role? *Psychological Bulletin, 129*, 10-51.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Grossman, I., & Varnum, M. E. W. (2011). Social culture, and cognition.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Science, 2*, 81-89.
- Guimond, S., Chatard, A., Martinot, D., Crisp, R. J., & Redersdorff, S. (2006). Social comparison, self-stereotyp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221-242.
- Heine, S. J. (2008). *Cultural psychology*. New York, NY: Norton.
- Horberg, E. J., Oveis, C., Keltner, D., & Cohen, A. B. (2009). Disgust and the moralization of pu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63-976.
- Ji, L. J., Nisbett, R. E., & Su, Y. (2001). Culture, change, and prediction. *Psychological Science, 12*, 450-456.
- Kawachi, I., Kennedy, B., Lochner, K., &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1491-1498.
- Kemmelmeier, M., & Oyserman, D. (2001). The ups and downs of thinking about a successful other: Self construals and th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311-320.
- Kitayama, S., & Cohen, D. (2007).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Kraus, M. W., Côté, S., & Keltner, D. (2010). Social class, contextualism, and empathic accuracy. *Psychological Science, 21*, 1716-1723.
- Kraus, M. W., & Keltner, D. (2009).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 99-106.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the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92-1004.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11). Social class as culture: The convergence of resources and rank in the social realm. *Psychological Science, 20*, 246-250.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 546-672.
- Kusserow, A. S. (2004). *American individualism: Child rearing and social class in three neighborhoods*.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Kühnen, U., Hannover, B., & Schubert, B. (2001). The semantic-procedural interface model of the self: The role of self-knowledge for context-dependent versus context-independent mode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97-409.
- Kühnen, U., & Oyserman, D. (2002). Thinking about the self influences thinking in general: Cognitive consequences of salient self-concep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492-499.
- Lareau, A. (2002). Invisible inequality: Social class and child rearing in black families and white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747-776.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2003). Culture, self, and the reality of the social. *Psychological Inquiry, 14*, 277-283.
- Marx, K., & Engels, F. (1973).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In Karl Marx, *The revolutions of 1848: Political writings* (Vol. 1, pp. 62-98). Harmondsworth, United Kingdom: Penguin. (Original work published 1848)
- Masuda, T., & Nisbett, R. E. (2006). Culture and change blindness. *Cognitive Science, 30*, 381-399.
- Molleman, E., Pruyn, J., & van Knippenberg, A. (1986). Social comparison processes among cancer pati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1-13.
- Na, J., & Chan, M. Y. (2016). Subjective perception of lower social-class enhances response inhibi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0*, 242-246.
- Na, J., & McDonough, I. M., Chan, M. Y., Park, D. C. (2016). Social-class differences in consumer choices: Working-class individuals are more sensitive to choices of others than middle-class individ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 430-443.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New York: Free Press. 최인철 역 (2003).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Oakes, J. M., & Rossi, R. H. (2003). The measurement of SES in health research: Current practices and steps toward a new approac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 769-784.
- Oyserman, D., & Lee, S. W. (2008). Does culture influence what and how we think? Effects of prim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Bulletin, 134*, 311-342.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771-784.
- Schachter, S. (1959).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703-720.
- Steil, J. M., & Hay, J. L. (1997). Social comparison in the workplace: A study of 60 dual-career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427-438.
- Stephens, N. M., Fryberg, S. A., & Markus, H. R. (2011). When choice does not equal freedom: A sociocultural analysis of agency in working class American contex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 33-41.
- Stephens, N. M., Markus, H. R., & Fryberg, S. A. (2012). Social class disparities in health and education: Reducing inequality by applying a sociocultural self model of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119, 723-744.
- Stephens, N. M., Markus, H. R., & Townsend, S. S. (2007). Choice as an act of meaning: The case of social cla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14-830.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 White, K., Lehman, D. R., & Cohen, D. (2006). Culture, self-constru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oth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582-592.
- Wilkinson, R. G. (1999). Health, hierarchy, and social anxiet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 48-63.
- Wills, T. A. (1991). Similarity and self-esteem in downward comparison. In J. Suls &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51-78). Hillsdale, NJ: Erlbaum.
- 1 차원고접수 : 2016. 09. 09.
수정원고접수 : 2016. 11. 08.
최종게재결정 : 2016. 11. 12.

Psychology of Social Class: Analytic- Holistic Thinking &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Beom Jun Kim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holistic thinking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depending on social class. 1,000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Analysis-Holism Scale(AHS),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cale(the 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 social class, and sex. The results show that analytic-holistic thinking differs depending on one's perceived social class. The high class people are less holistic than the middle and low class people. The same tendency appears on 'tolerance of contradiction' and 'perception of change', while not on 'causal perception' and 'locus of attention', which are the 4 sub-factors of the AHS scale. In cas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he low class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socially comparative than the middle and high class people. The same pattern was observed in the domains of ability and opinion, both of which are sub-factors of INCOM.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class, Culture, Analytic-holistic thinking style, Social comparison